

스몰캡

[One page One idea] K-Small Cap

Korea를 빛낼 수 있는 Small Cap

K-POP과 K-Contents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히트상품이 되었다. K-Cosmetic, K-Food 등도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과거 1970~1990년대 일본의 경우 가전/자동차 등의 경제성장을 기반으로 J-POP, J-Movie, J-Food 등으로 확산되었다. 한국의 경우 문화/콘텐츠를 기반으로 다양한 산업영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스몰캡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K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다고 기대되는 Small Cap 기업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에스트래픽

도로사업(요금징수 시스템, 하이패스 시스템)과 철도사업(철도신호, 철도통신)등의 교통관련 SI를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미국내 지하철 개찰구(Fare Gate) 교체사업에서 K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동사가 미국 현지내 구축중인 New Fare Gate(높은 출입구와 강화유리)을 통해 미국내 사회적 문제인 무임승차를 줄이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19년 워싱턴 지하철 개찰구 교체사업을 시작으로 점차 지역을 확대하고 있다. 23년 샌프란시스코, 24년부터 시작된 LA 지하철 개찰구 사업 모두 단독으로 진행하고 있다. LA는 2026년 북중미월드컵-2027년 슈퍼볼-2028년 LA올림픽까지 대형 스포츠 이벤트가 이어지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개찰구 교체 사업이 최소 3년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미국내 가장 많은 유동인구와 지하철 역사를 보유하고 있는 뉴욕에서 올해 하반기 개찰구 교체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워싱턴-샌프란시스코-LA로 이어지는 레퍼런스를 통해 뉴욕에서도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미국내 K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기회로 작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컨텍

아시아 유일의 민간 상용 지상국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외 10개가 넘는 지상국을 직접 구축 및 운영을 하고 있으며, AP위성/CES/CSO/TXspace 등의 자회사를 통해 발사체를 제외한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내 전 영역내 Full Value-Chain을 구축, 이를 기반으로 해외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우주사업을 시작하는 중앙아시아, 동남아 국가 등을 대상으로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가격경쟁력 뿐 아니라 다운스트림내 서비스를 패키지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수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 프로젝트는 글로벌 Top Tier 기업들과의 경쟁이라는 점에서 수주 성공시 K의 위상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한다.

코셈

전세계에서 전자현미경 상용화에 성공한 국가는 5개국(독일, 미국, 체코, 일본, 한국)에 불과하며 동사는 한국의 이름을 올리게 한 기업이다. 전자현미경은 전자의 파장을 통해 물질을 관측하는 방식으로, 전자의 산란을 막기 위해 진공에서 관측하는 구조이다. 동사는 광학현미경처럼 대기압에서 관측할 수 있는 대기압 전자현미경(Eitron) 제품을 세계 최초로 준비하고 있다. 대기압에서 관측할 경우 살아있는 생명체를 검사할 수 있으며, 진공을 만드는 과정이 필요없다는 장점 등이 있다. 현재 다수의 산업/기업과 제품 Customizing이 진행 중이다. 이르면 제약/바이오 기업향으로 연내 가시적인 성과가 기대된다. Eitron의 성공시 전자현미경내에서 K-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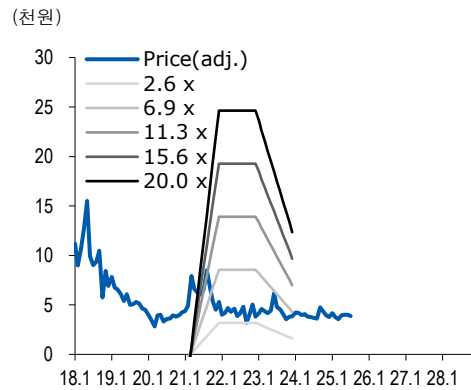


권명준 스몰캡
myoungchun.kwon@yuantakore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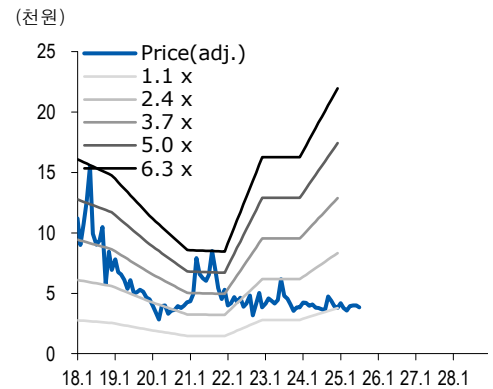
서석준 Research Assistant
seokjun.seo@yuantakorea.com

종목	투자 의견	목표주가 (원)
에스트래픽	Not Rated (M)	-(M)
컨텍	Not Rated (M)	-(M)
코셈	Not Rated (M)	-(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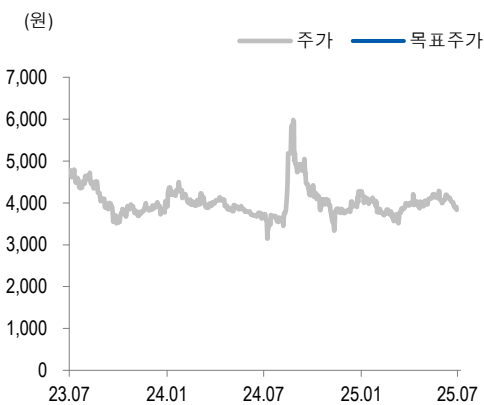
P/E band chart



P/B band chart



에스트라픽 (234300) 투자등급 및 목표주가 추이



일자	투자 의견	목표가 (원)	목표가격 대상시점	과리율	
				평균주가 대비	최고(최 저) 주가 대 비
2025-08-01	Not Rated	-	1년		
2025-07-04	Not Rated	-	1년		

자료: 유안타증권

주: 과리율 = (실제주가* - 목표주가) / 목표주가 X 100

* 1)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평균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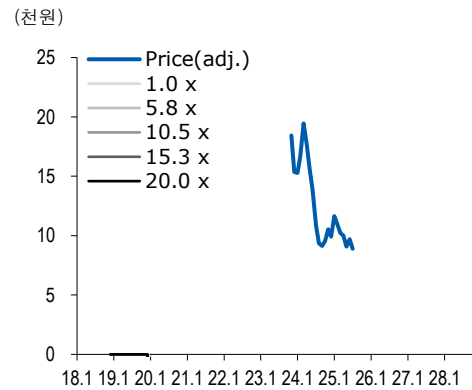
2)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최고(또는 최저) 주가"

구분	투자의견 비율(%)
Strong Buy(매수)	0
Buy(매수)	94.3
Hold(중립)	5.7
Sell(비중축소)	0
합계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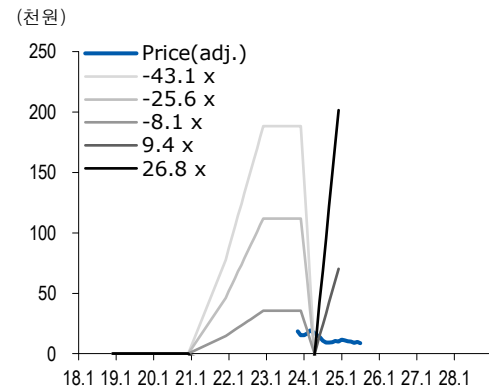
주: 기준일 2025-07-31

※해외 계열회사 등이 작성하거나 공표한 리포트는 투자등급 비율 산정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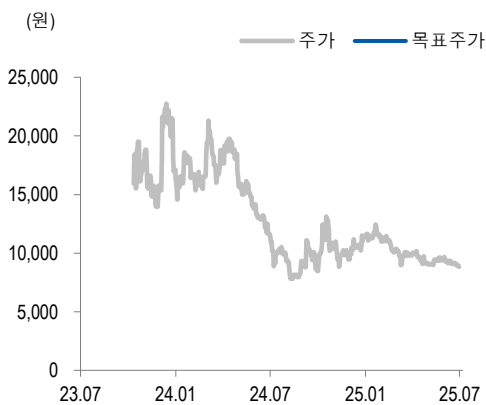
P/E band chart



P/B band chart



컨택 (451760) 투자등급 및 목표주가 추이



일자	투자 의견	목표가 (원)	목표가격 대상시점	과리율	
				평균주가 대비	최고(최 저) 주가 대 비
2025-08-01	Not Rated	-	1년		
2025-02-27	Not Rated	-	1년		

자료: 유안타증권

주: 과리율 = (실제주가* - 목표주가) / 목표주가 X 100

* 1)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평균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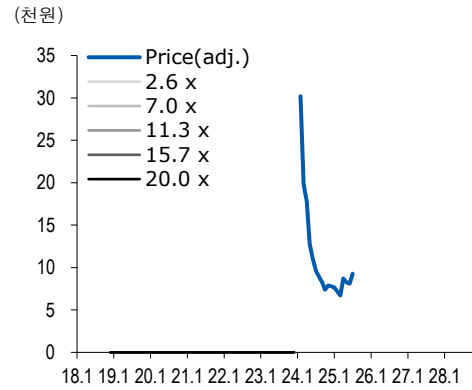
2)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최고(또는 최저) 주가"

구분	투자의견 비율(%)
Strong Buy(매수)	0
Buy(매수)	94.3
Hold(중립)	5.7
Sell(비중축소)	0
합계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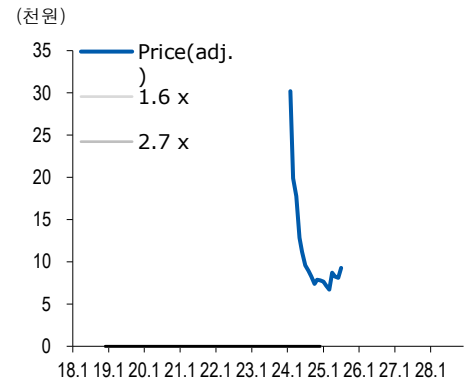
주: 기준일 2025-07-31

※해외 계열회사 등이 작성하거나 공표한 리포트는 투자등급 비율 산정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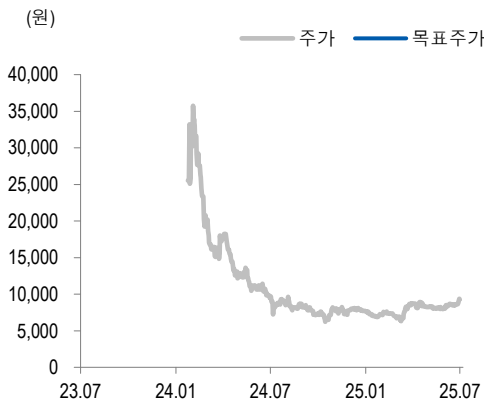
P/E band chart



P/B band chart



코셈 (360350) 투자등급 및 목표주가 추이



일자	투자 의견	목표가 (원)	목표가격 대상시점	과리율	
				평균주가 대비	최고(최저) 주가 대비
2025-08-01	Not Rated	-	1년		
2025-07-09	1년 경과 이후		1년		
2024-07-09	Not Rated	-	1년		

자료: 유안타증권

주: 과리율 = (실제주가* - 목표주가) / 목표주가 X 100

* 1)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평균주가"

2)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최고(또는 최저) 주가"

구분	투자의견 비율(%)
Strong Buy(매수)	0
Buy(매수)	94.3
Hold(중립)	5.7
Sell(비중축소)	0
합계	100.0

주: 기준일 2025-07-31

※해외 계열회사 등이 작성하거나 공표한 리포트는 투자등급 비율 산정시 제외

Appendix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함. (작성자: 권명준)
- 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동 종목 발행주식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전문투자자 및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공표일 현재 대상법인의 주식관련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종목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12개월, 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4단계(Strong Buy, Buy, Hold, Sell)로 구분한다
- Strong Buy: +30%이상 Buy: 15%이상, Hold: -15% 미만 ~ +15% 미만, Sell: -15%이하로 구분
- 업종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12개월, 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의 투자등급 3단계(Overweight, Neutral, Underweight)로 구분
- 2014년 2월21일부터 당사 투자등급이 기존 3단계 + 2단계에서 4단계로 변경

본 자료는 투자자의 투자를 권유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금융투자분석사가 신뢰할만 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와 정보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 당사와 금융투자분석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자료는 당사 투자자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송 인용 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